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010. 6. 4. 12:00

황 란 Ran HWANG

Illusion & Reality

2010. 6. 9 ~ 7. 11

Vernissage | 2010. 6. 9 pm 5:00

학교재 갤러리 본관

Hakgojae Gallery Space 1

- .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재미작가 황란의 개인전
- . 단추와 실의 화려한 변신,
무수한 반추와 숙고의 과정이 만들어낸 세계
- . 달콤한 표피가 숨기고 있는 살벌한 실체, 현대사회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 . 두드림의 끝에 찾아온 치유와 명상의 세계

목차	Contents
I	전시개요
II	전시주제
III	전시내용
IV	전시 관련 자료
	1. 작가 약력
	2. 전시 서문
	기혜경, Illusion & Reality

담당 학교재갤러리 맹정환, 김한들
(02-720-1524~6 / 010-5319-6889)

보도자료 및 이미지는
학교재 웹하드
"1006 황란展"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ID : hakgojaeart
PW: guest

I. 전시개요

제 목 : 황란 개인전 “Illusion & Reality”

일 시 : 2010년 6월 9일 ~ 7월 11일 (32일간)

장 소 : 학고재갤러리 본관 (서울 종로구 소격동 70) T: 720-1524~6

출품작 : 단추와 실, 크리스탈 등으로 제작한 평면 및 대형 설치작업 등 총 10여점

II. 전시주제

-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황란의 개인전
- 단추와 실의 화려한 변신, 무수한 반추와 숙고의 과정이 만들어낸 세계
- 달콤한 표피가 숨기고 있는 살벌한 실체, 현대사회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 두드림의 끝에 찾아온 치유와 명상의 세계

III. 전시내용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황란의 개인전

1997년부터 뉴욕을 무대로 생활하며 이국적 느낌의 동양적 감성표현을 통하여 관심을 모인 작가 황란이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학고재에서 개인전을 연다. 고급 문화와 팝 문화를 아우름과 동시에 동양과 서양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란은 뉴욕 허드슨리버(Hudson River) 갤러리(2002)와 허치슨(Hutchins) 갤러리(2004), 스위스 취리히의 카샤 힐데브란트(Kashya Hildebrand) 갤러리(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단추와 실의 화려한 변신,

무수한 반추와 숙고의 과정이 만들어낸 세계

황란의 작품은 수천, 수만개의 비즈와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는 새와 부처·달항아리 등 매혹적인 이미지에 현대인의 일상성,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의미, 비어있으며 차있는 공(工)의 상태 등 동양의 정신성을 담아 보여준다.

황란은 미국 유희중 생계를 위해 패션업계에서 일하면서 무수히 쌓여있는 실·단추·핀·구슬 등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해 거부장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반추함과 동시에, 패션 아이콘의 화려함을 빌어 자신을 드러내왔다. 그러던 중 2001년 9.11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목격한 작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일상의 오브제인 단추·핀 등에서 보통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작가는 이 재료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비즈에 보통사람의 의미를 담기 위해, 황란은 반복하여 두드려 박는 인고의 창작과정을 수행한다. 그것은 한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화의 과정이고, 사회화의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단추와 실이라는 재료에 대한 인식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간 군상으로 확대될 때, 그것이 어우러져 이뤄내는 결과물은 이 사회의 명과 암을 내포하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달콤한 표피가 숨기고 있는 살벌한 실체, 현대사회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

이번 전시 “Illusion & Reality”에서 황란의 세계는 이전보다 더 영롱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더 냉혹한 위험과 공포가 드러난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 속에 나타나는 독거미 〈Light of Cheonggye-cheon〉, 붉게 흐드러진 매화가지 속에서 파리를 들고 있는 화려한 뱀 〈Sweet InYean〉, 사막의 꽃들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가시 〈Flower in Desert〉 등 화려한 배경 안에 위험한 것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다워 다가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처받는 아름다움이다. 화려함 이면의 냉혹함을 통해 작가는 현대 사회의 양면성을 고발한다. 수없는 반추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낸 화려한 세계와 그 안에 도사리는 위험은 물질만능사회의 이면에 있는 부조리와 같으며, 또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두드림의 끝에 찾아온 치유와 명상의 세계

황란의 작업은 두드림이다. 끊임없이 두드려 박는 단순노동과 그 결과로 완성된 화려한 작품은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득도하는 승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작가는 삶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의 선사상에 심취하여 해탈하기 위해 고행하는 승려처럼 끊임없이 두드림의 행동을 반복한다. 고단하고 지루한 작업의 끝에 완성된 작품 또한 불교적이다. 수만 개의 단추들이 모여 부처의 모습을 이룬 작품 〈The Rest〉에서 반가부좌의 자세로 은은하게 빛나는 부처의 이미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앉아 있는 무릎에 다다르면서 그 형상이 흩어져 버린다. 무릎에서 부서져 나와 바닥으로 흩어져 있는 단추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있는 사람들, 즉 소멸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바닥에는 새로이 올라오는 단추들이 있다.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다. 이는 소멸은 반드시 또 다른 생성과 맞물려 있다는 윤회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화려하지만 냉혹한 삶의 아이러니한 풍경과, 상처받고 힘든 이들을 치유하려는 고행과정을 만나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IV. 전시 관련 자료

1. 작가 약력

B.F.A., School of Visual Arts, 뉴욕, 미국
M.F.A., 중앙대학교 미술대학원

SELECTED SOLO EXHIBITION

2010 학교재, 서울
2009 Kashya Hildebrand Gallery, 취리히, 스위스
2x13 Gallery, 파주
2007 2x13 Gallery, 서울
2006 Hass Gallery, Bloomsburg University, 램버트빌, 펜실베이니아
2005 Open Studio, Vermont Studio Art Center, Jonson Vermont, U.S.A
2004 KIAF, 코엑스, 서울
Hutchins Gallery, Long Island University, 뉴욕A
2002 Hudson River Gallery, 뉴욕, 미국
이목화랑, 서울
2001 Hudson River Gallery, 뉴욕, 미국
2000 Arsenal Gallery, 파리
외 다수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0 Fokus Lodz Biennale 2010, 로제, 폴란드
Art HK10, 홍콩국제아트페어, Kashya Hildebrand Gallery, 홍콩
Art Dubai 2010, 두바이 아트페어, Kashya Hildebrand Gallery, 학교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09 Kaleidoscope, Kashya Hildebrand Gallery, 취리히, 스위스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예정지(舊 기무사터), 서울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학교재, COEX, 서울
Triple of Light, mnv (Museo Nacional de Artes Visuales), 우루과이
Art Dubai 2009, 두바이 아트페어, Kashya Hildebrand Gallery, 학교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08 Art Asia, Kashya Hildebrand Gallery, 마이애미
ACAF (아시아현대미술전), Pier 92, 뉴욕, 미국
Special Exhibition- You in a Red Chamber, I Journey West, 뉴욕, 미국
Art Paris Abu Dhabi, Emirates Palace, Kashya Hildebrand Gallery,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2x13 Gallery, COEX, 서울
Facial of Art- 20 Years Anniversary exhibitio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7 Asian Contemporary Art Fair, Special Exhibition-Simulasian, Pier 92, 뉴욕, 미국
Incarnation, Hammond Museum, 뉴욕, 미국
Drawing the Line - Against Domestic Violence-Auction, The Metropolitan Pavilion, 뉴욕, 미국
Woman in Love, Tenri Gallery, 뉴욕, 미국
Mi Art Fair, 밀라노, 이탈리아
외 다수

2. 전시 서문

Illusion & Reality ; 치명적 아름다움

기혜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황란은 실, 단추, 핀, 구슬을 작업 재료로 이용하는 작가이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붓을 놓았던 그가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작가 스스로 밝히듯 삶의 무게가 녹녹치 않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든 후다. 삶의 방향을 작업 속에서 찾으며 결심한 이후 황란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뉴욕체재 초기, 생계를 위해 패션 업계에 몸담은 것이 계기가 되어 어느 날 주변에 무수히 쌓인 단추 상자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규모가 작은 여성적 성향이 강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뉴욕이라는 낯선 도시는 황란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주로 평면적인 회화작업을 주로 하던 그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작업 재료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실과 단추 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치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주로 팬시한 여성 모델의 실루엣이나 패션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 혹은 여성의 액세서리 같은 것을 중요 모티브로 사용한다.

이 시기의 작품 경향은 액자 틀에 인체 모형인 마네킹을 그대로 붙여 작업한 작품부터 작은 박스 형태 속에 여성의 실루엣을 오려 넣고 단추 등으로 장식한 작품, 혹은 패션모델이나 액세서리의 실루엣을 이용한 드로잉 작업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작업은 대작 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품들이다. 단추와 구슬을 사용하거나,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한 땀 한 땀 떠 나간 작업, 혹은 실루엣을 오리거나 붙여나가는 작업으로 나뉜다. 황란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부장적 권력이 강한 한국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반추함과 동시에 패션 아이콘의 화려함을 빌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여성의 일상을 관통하는 요소인 패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반추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작업은 페미니즘적 맥락보다는 199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업 이전 시기의 페미니즘적 맥락과 다른 지점에 놓이게 한다. 그것은 작가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이나 생리적 차이에 천착하기보다 자신 주변에 있는 일상적 이미지들을 소화하고 그것을 가벼운 터치로 차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대량 소비사회에서 소비되는 이미지로서의 여성상을 드러내고 동시대 여성의 욕망과 그를 통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에 황란이 단추와 실에 주목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견한 단추와 실이 갖는 재료의 속성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들 오브제가 갖는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일상성과 보편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9.11 사태를 실제 목격한 후 참사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모두 단추 하나, 실 한 올처럼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렇듯 보잘것없는 보통사람들이 없이는 그 어떤 사회도, 작품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너무 흔해서 주목할 만한 대상조차 되지 못한 하나의 단추와 한 올의 실이, 이제 그의 작품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보통 사람을 대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가 사용하는 재료가 작품을 구성하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황란의 작업에 나타나는 하나의 개별 단위 유닛이 우리 사회의 일원인 보통사람을 의미한다면, 그의 작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유닛은 이 사회에서 갖는 보통 사람의 의미만큼을 작품 속에서 담지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판넬 위에 단추 혹은 비즈를 못으로 두드려 박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황란의 작업에서 반복되는 두드림의 시간은 한 인간이 사회에서 갖는 숙고와 반추의 시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작업은 무수한 반추와 숙고의 과정의 결과물이다.

대량 소비사회의 일상성을 대변하는 재료로써 단추와 실에 대한 인식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간 군상과 연결되어 확대되면 그것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갖는 진폭은 커다란 변화를 띠게 된다. 재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후, 황란의 작품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중성화되어 나타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작업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새나 부처, 달 향아리 등이다. 닫힌 공간 속에서 비상을 꿈꾸는 〈새〉 시리즈가 드러내는 현대인의 일상성, 머리 위로 가득 핀 매화나무 밑에 참선하고 앉은 〈부처〉 시리즈가 드러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써의 부처의 의미를 나타낸다. 혹은 비어있으며 차있는 공(空)의 상태를 빈 공간과 찬 공간의 반전을 통해 드러내는 〈달 향아리〉 시리즈는 말 그대로 그의 작품이 현대성과 그 너머의 동양적인 선사상과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은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전시 〈Illusion & Reality〉을 살펴볼 수 있다. 전과 차이가 있다면 작가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해졌으며 유독 우리 주변의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한 것들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유혹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란은 이번 전시에서 ‘달콤하지만 살벌한’ 것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화려하면서도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는 세계 속에 펼쳐 보이고 있다. 작가가 드러내는 이 세계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흔들리는 불빛 속에 몸을 숨긴 독거미가 있는가 하면, 흐드러지게 핀 홍매 속에 몸을 틀고 있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뱀이 있고, 사막의 꽃들이 감춘 가시가 있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세계에 매몰되어 살지만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때조차 피어오르는 화산재에 감혀 어디로 가야할지 분간 못한 채 비상하지 못하는 새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황란이 이번 전시를 통해 이루어 놓은 세계는 양가적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작품의 이미지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다시 그가 다루는 재료에서 연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자개 단추, 크리스털 볼, 비즈처럼 화려하면서도 영롱함을 기본 요소로 삼는 재료를 주로 이용하는 그의 작품은 자칫 장식적으로 보일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굉장한 횡수의 망치질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수작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더불어 작품의 재료가 갖는 화려함과 영롱함에 놀람을 금치 못하게 된다.

작품의 세부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은 그가 다루는 동양적인 선의 세계를 화두로 던지는 작품의 내용과 교차되면서 관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교묘한 착종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명상을 이야기하되 명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장식적인 화려함의 극치를 통해 그 반대편에 있다고 평해지는 명상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그가 단추와 구슬, 색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로 핀을 선택하는 순간 작품이 갖게 된 근본적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반되는 착종현상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주목하게 한다.

너무 아름다워 부지불식간에 다가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 황란은 그 이면에 감춰진 살벌하면서도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위험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어찌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그렇다면, 황란의 작품은 비관적이지만 한 것일까? 대답을 대신하여 작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물가의 수류관음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열어 놓고, 해석의 여지를 관객 각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제 ‘달콤하지만 살벌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관객의 몫이 되었다.